

삼성광주전자(주)

## 녹색경영방침에 의한 안전보건 초일류 기업으로...

「KFPA 화재안전인정」, 「제1회 대한민국안전대상」 획득

조태엽 | 협회 홍보팀 차장

### ■ 회사개요

이번 『방재와 보험』에서 찾아간 삼성광주전자(주)의 제1공장은 광주공항 북쪽 10km 지점의 광산구 오선동에 위치한 하남산업단지에 자리잡고 있으며, 공장부지면적 약 440,000㎡(약 13만3천평), 연면적 합계 약 183,000㎡(63개동, 약 5만5천평)이고, 가동용 냉장고, 김치냉장고, 청소기, 쇼케이스 및 자동판매기를 생산하고 있다.

매출액 1조원 규모로 성장한 삼성광주전자(주)는 장애인들과의 환경체험, 임직원 자녀봉사활동, 주부봉사단활동, 독거노인 방문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안전대상, 광주 안전문화 대상 수상 등 안전방재관리 우수업체로서 협력사는 물론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정착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 방재시설의 관리

삼성광주전자(주)에서는 환경안전에 관한 녹색경영방침에 의해 인간의 생명과 자연을 보호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방재분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전사적인 인적, 물적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하

고 있어 다른 회사의 부러움을 살 만하였다.

녹색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안전환경분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화재안전부문은 세부계획과 실행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화재예방측면에서의 위험관리는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발화위험공정에 대한 공정분석과 취약요소에 대한 대응대책의 수립, 자동화재경보시스템의 감시가 절대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사각지대의 위해요소 및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 대하여는 중점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다.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는 감시경보시스템을 사업장별로 1, 2, 3단지로 나누어 설정하고, 방재센터의



종합 감시반 2대로 29개의 중계기에서 보내오는 각종 방재정보를 감시 제어하고 있으며, 정확한 동작 및 최적의 관리를 위하여 주기별 점검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 특히 구내 80%이상의 지역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가스계소화설비의 유지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방화관리 조직과 훈련현황

방재센터의 방화관리 인원 이외에도 제조현장 및 각 부서에 안전·방재 담당자들을 선임하여 소방시설 관리 및 소방훈련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건물 단위별 자위소방조직이 구성되어 있어 매월 각 부서 특성(위험요인)에 따른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자위소방조직의 실력은 1999년 11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창 받을 정도로 출중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훈련은 신참직원 때부터 몸으로 익히게 하고 있다. 신입사원 위주로 소화기, 소화전 실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대에서 주관하여 분기별 불시 소방훈련을 통해 비상사태에 따른 행동요령을 숙련시키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 후 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하구간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공기 호흡기 및 비상용 마스크 착용, 대피요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시키고 있으며 과장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동시호출시스템을 통해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경영진의 소방, 방재에 대한 관심 여부

환경안전과 정문조과장은 “기업경영에 있어 안전은 생산, 품질과 더불어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우리회사는 안전보건 초일류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안전에 대한 관심은 국내 어느 기업보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대단한 자부심이다.

이어서 “예를 들면 우선 매월 실시하는 「녹색경영 회의」는 대표이사가 주관하는데 이 회의는 안전·방재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서 주요동향 및 현안 문제점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그 하부에 있는 「녹색회의」는 제조팀별 팀장(임원)이 주관하는 안전방재 관련 회의로서 안전방재 활동결과를 발표하고,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대책을 발표하게 하는 등 현안문제 심의 및 개선사례 발표 등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에 관한 투자 또한 최우선으로 진행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의 말만 들어도 빈틈이 없는 것 같다.



## | 탐 방 | 삼성광주전자(주)

실무자회의에 해당되는 「녹색회의」에게 주어진 권한도 크지만 책임 역시 만만치 않음을 부연설명에서 느낄 수 있었다.

### ■ 화재예방 업무와 안전관리를 담당하면서 느낀 점

환경안전과 정문조과장은 오랜 경험을 심플하게 풀어주었다. “화재는 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므로 근본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신축, 설비투자시 초기부터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각종 법규 및 규정에 맞게 설치하여, 올바르게 설치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라고 한다. 원론에 충실하다는 이야기는 화재안전에는 변칙이 안통한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소방방재업계에 대한 문제점도 놓치지 않았다.

“화재감지기 등 각종 소방용 기자재의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업체마다 생산되는 제품이 호환성이 없어요.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한 소방방재 업계의 규모가 대부분 영세하여 신기술 개발이 되지 않아 첨단기술제품은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공사업 또한 타 업종에 비해 규모가 작아 영세성을 면치 못하며, 하도급 공사수주로 부실 시공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합니다.”라며 애로사항을 털어 놓았다. 삼성광주전자(주)와 같이 대규모 공장에서 이렇게 느낀다고 하니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

### ■ 화보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험관리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볼 때 화보협회의 안전점검은 30여년에 걸쳐서 소방방재분야에 커다란 줄기였으며, 화재안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

무관리자들이 알지 못하는 전문기술이나 관리기술을 협회 점검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국내·외 소방방재의 동향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 업무추진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지요.”라며 화재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훈련된 자위 소방대의 역할을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해 주었다.

### ■ 회사에 대해 특별히 자랑하고 싶은 말

“화재예방 활동은 어느 사업장이나 대동소이하겠지만, 특히 우리회사는 화재예방관리에 있어 보다 세부적인 활동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화기작업에 대해서는 사전허가제를 운영하고 화기작업의 안전조치 상태와 관리감독자 상주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절별 안전대책을 운영하고 3일 이상 연휴 발생시 사전에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하는 예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화재사고에 대해서는 그 어느 사업장보다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고 자부한다.

정과장은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2001년에 『KFPA 화재안전인정』을 받았고, 2002년에는 경향신문사가 주최하는 『제1회 대한민국안전대상』수상한 바가 있다며, 모든 것이 우리회사를 도와준 많은 분들의 덕분이라고 말했다.

20여년 동안 환경안전분야에 종사하면서 작게는 한 기업을 위해, 크게는 지역사회의 안전과 인명안전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고자 하는 정과장의 신념에 존경심이 생겼다. 이러한 신념이 있는 한 삼성광주전자의 화재안전은 보증을 것이 아닐까? 삼성광주전자의 무궁한 발전과 환경안전팀의 건승을 기대해 본다. ☺